

2022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2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여성환경연대 미래비전 계획서

제1장 조직 소개

[조직 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공동대표: 이안소영, 채은순, 양지연, 송주영 이사: 장이정수, 강희영, 조혜영, 최정은, 윤경효			
설립년월일	1999. 6. 23.	상근직원 수	8명
소재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 여성미래센터 201호		
법인유형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비영리 임의단체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_____)		
홈페이지	www.ecofem.or.kr	모 법인명	
공익법인	Y	주무관청	환경부
조직의 설립목적			
환경을 생각하는 여성들의 모임으로서 여성환경 의제(정책)에 대한 연구, 여성환경인의 지도력 개발, 국내외 여성환경인의 연대를 통해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의 재무제표 및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년(연말)	2019년 (연말)	2020년(연말)
총 자산		457	485	538
부채		105	114	138
순 자산	기본재산	183	183	183
	보통재산	169	188	217
수익 총계		611	536	566
비용 총계		587	535	572

[주요 사업] 3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문장으로 기술)
모두를 위한 월경 (젠더갈등의 해소)	인구 절반이 겪는 보편적 문제이자 여성건강의 바로미터인 월경! 월경 빈곤 해소 및 안전한 월경을 위한 제조사 제도 활동 등을 포함 월경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전파한다.
기후위기X여성 (생태사회로 전환)	모두의 현실로 다가온 범지구적 해결과제, 기후위기와 젠더갈등! 여성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운영하며 정책 제안집을 지속 발간한다
제로웨이스트 실천 (유해물질 최소화)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및 물티슈 유해성, 미세플라스틱 이슈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최소화를 촉구하고, 일회용컵과 생수 페트병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가 회수 등 제도 개선 촉구 캠페인을 진행한다.

[키워드]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개 작성해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

#환경 #여성 #기후위기대응

제2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젠더감수성과 건강한 몸교육의 출발점, 모두의 월경

인류의 절반인 여성은 생애주기에서 평균 40년 동안 월경을 한다. 월경은 여성 건강의 중요한 지표이자 여성의 몸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출발점이다. 건강한 월경기간을 보내는 것은 소득이나 연령, 종교, 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며, 당사자와 연결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문제다. 더불어 여성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회에서 여성과 연결된 모두의 젠더감수성과 건강한 몸교육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사회인식과 여성이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월경과 월경하는 여성의 몸을 혐오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때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으로 도구화 하는 N번방사건이나 교제폭력, 교제살인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줄어들 것이다. 월경을 개인적이고 사소한 문제에서 공론장으로 끌어내는 일, 초경부터 환경까지 다양한 몸을 가진 여성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 초경 시기의 어린 남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월경 상식을 심어주는 일은 여성과 연결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건강한 생태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젠더 갈등을 해소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여전히 심각한 월경빈곤, 사회적 낙인

2016년 ‘깔창 생리대’ 사건 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무상지급 기준이 마련되었지만, 지원받는 청소년에게 ‘가난한 가구’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지원 기준도 애매해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로 경제사정이 더 어려워진 최근에는 ‘월경빈곤’이 한층 더 심각해졌다. 2021년 서울시 청소년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7%는 ‘비용이 부담되어 생리용품 구입을 망설인 적이 있다’고, 74%의 청소년들은 ‘월경용품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용 개수를 줄이기 위해 생리대 교체 권장시간(4시간)을 넘겨 사용한 적 있다’고 답한 만큼 심리적/물질적 월경빈곤은 여전히 시급한 문제다.

내 몸이 증거다: 생리대 안전성 문제 심각, 생리용품 제조사의 각성과 변화 필요

초경부터 완경까지 여성이 월경 기간 동안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예민함’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했다.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자궁내막증과 불임, 극심한 생리통과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있게 나서서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회용생리대가 출시된 지 45년이 지났고 많은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안전성에 대한 연구는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

2017년 여성환경연대가 일회용생리대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 이후 그해 8월, 3,009명의 여성들이 ‘내 몸이 증거다’라는 메시지로 일회용 생리대 부작용을 제보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생리용품 제조사의 인식을 바꾸고 문제를 개선하는 단초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공적 지원 부재로 제대로 된 교육의 필요성 대두

월경에 대한 교육 부재로 부정적인 시선과 금기, 상식적이지 못한 편견 또한 여전하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 여성에게 월경은 ‘그날’, ‘매직’, ‘딸기잼’으로, 생리대는 ‘그거’로 불리며 영문도 모른 채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현상이 되었고, 젠더 혐오의 소재가 되었다.

공교육에서는 월경과 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아쉬운 상황이다.

서울시청소년월경용품보편지급운동본부가 2020 청소년 916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서 월경용품의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교육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76.7%, 월경에 대한 정보를 주로 온라인에서 개인적으로 얻는다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다.

월경을 터부시하고 혐오하는 풍토도 여전해서, 학교나 직장에서 생리공결제나 생리휴가 같은 제도를 사용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2021년 기본소득당 조사, 서울시청 여성 공무원들의 보건의휴가 사용률은 0.4%에 불과함)

아빠와 사는 소녀, 장애 여성, 이동 노동자의 월경 고통 문제 해결의 시급성

게다가 한부모 아빠와 살고 있는 청소년은 월경에 대해 마음놓고 물어볼 기관이나 믿을 만한 성인이 없어 불안하고 답답하다.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생리대에 점자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사이즈나 특성을 구별할 수 없다. 지체장애가 있는 여성에게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생리용품 개발과 지급지원이 시급하다. 콜센터나 검침원 등 이동 노동자, 건설업 종사 여성에게는 생리대를 교체할 마땅한 장소나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 사회적 노력의 부족으로 여성은 월경하는 자신의 몸을 미워하고 부정하게 된다. 월경하는 몸이 자연스럽고

편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놓여진 상황이나 위치, 노동조건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사회적 제도 변화가 매우 절실하다.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FACT) 제기→검출실험 등 과학적 진단→사회적 변화 실현

질병은 온전히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자연의 속도에 반하는 현대 산업 구조,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 주된 원인이다. 나아가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은 연결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사용하고 노출되는 화학물질, 그러한 물질이 들어간 제품, 작업장, 노동 환경에 주목해 문제를 진단하고 실천과 변화를 주도해왔다.

- 2017년 네일샵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실내오염 실태를 조사하여 네일 작업이 여성들의 생리통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찾아내어, 정부에 국소배기장치를 제안하고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일회용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생리통, 외음부 짓무름, 피부알레기, 자궁내막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하여 검출실험을 하고, 안전대책을 요구하여 중요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2. 당사자 개개인이 직접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실천적 시민과학

시민 개개인을 대상화하지 않고 운동의 당사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식을 함께 도출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함께 일구어내는 주체이자 동반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편적인 인식과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론은 우리 단체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다.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일상의 한 지점을 포착하여 일상적인 행동이 커다란 환경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인식하게 함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변화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 환경운동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2017년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던 월경기간 동안의 불편함이나 고통, 질환에 대해 여성 스스로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환경연대가 응답하여 생산자의 각성과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성과다. 또한 2021년에는 청소년 여성들과 월경정책 수다회를 개최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답답했던 문제들을 풀어내 소통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참여의 폭을 넓혔다.

3.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공감 스토리텔링으로 캠페인 참여 확산

여성환경연대는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의 시각이미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상암 월드컵경기장 내 대형마트에서 ‘파자마 캠페인’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고, 명동 한복판에서 진행한 ‘문제는 마네킹이야’ 퍼포먼스를 통해 야간노동과 대형 마트 노동자의 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패션 산업이 몸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 다소 무겁고 진지해질 수 있는 문제를 발랄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2018년에는 연남동 경의선 철길에서 ‘월경 피크닉’, 하자센터 앞마당에서 ‘월경페스티벌’을 열어 다양한 세대의 월경경험을 드러내 즐겁고 건강한 방식으로 유쾌하고 공유하고 공적인 장소에서 자유롭게 월경과 몸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 이밖에도 여성환경연대는 주요 캠페인과 핵심 정보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왔다. 화장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안전성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 ‘톡톡’,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을 검색할 수 있는 ‘face to fish’ 웹페이지를 만들었으며 월경 팟캐스트 ‘블러디 페미니스트’ 시리즈를 제작하고 플라스틱 프리 카페 지도 온라인 버전을 만들어 카카오 테마 지도에 올리기도 했다.

-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1. 여성과 환경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다

자연의 파괴와 비인간 생명체의 고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여성이 건강해질 수 없고 젠더갈등을 해소하고 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 그만큼 기후위기로 인한 생태환경의 파괴와 여성과 연결된 환경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한 환경운동, 생태계 영향을 고려한 여성운동을 꿈꾼다. 여성건강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외모가꾸기와 시선의 권력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동시에, 화장품 생산과 소비가 미세플라스틱을 만들어내거나 화학물질 배출로 바다와 토양을 위협하게 만들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민 캠페인을 벌인다.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기후정의가 젠더정의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환 패러다임을 만들어간다.

‘모두를 위한 월경’ 캠페인에서도 일회용생리대가 토양이나 해양생태계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고 공유하는 ‘플라스틱 프리’월경을 실천하고 교육한다.

2. 지역플뿌리 여성활동가, 커뮤니티에 기반한 과학적 실험과 대안을 제시하다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공공의 차원에서 변화를 만드는 정책활동과 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생활 현장에서 혁신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주민을 감동시키고 마을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경험의 장으로 초대해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을 강화한다.

여성환경연대는 지부 2곳과 지역모임을 기반으로 활동의 현장을 넓혀가고 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국내 최초로 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먹거리-환경, 생태텃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 여성들이 함께 서로의 건강을 돌보는 자조모임을 운영하였고 ('봄봄:나를 돌봄 서로 돌봄'), 동네 재래시장 내 제로웨이스트 실천인 용기내 캠페인, 지역NGO와 연계한 자치구 월경 조례 제정 및 시행, 자치구 예산과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는 젠더 거버넌스 활동 등을 진행해왔다.

3. 일상에서 공론장으로, 개인 실천에서 사회시스템 변화와 임팩트로 연계하다

시민들에게, 특히 여성들에게 친근한 일상의 한 지점을 포착하여 작은 시작을 통해 큰 사회적 임팩트가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여성환경연대의 방식이다. 일상적인 행동이 커다란 환경 문제와 연결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환경 문제 해결이 단순히 제도 개선이나 시스템 변화에 있지 않고 개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으며 개개인이 환경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문제의 대안을 여성환경연대가 먼저 직접 실험해보고 과정을 공유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이해도를 높인다. 이 과정에서 관심과 의지가 있는 개인, 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고 네트워크로 만들어 이끌어냄으로써 운동을 확대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도시텃밭, 플라스틱없다방, 공공월경대 프로젝트 등)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건강하고 안전한 월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이끌어냄

2017년 이후 여성환경연대 캠페인과 정책활동으로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생리대 함유 유해물질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행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VOCs)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저감화 대책이 시행되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대 포장재에 성분을 표기하는 전성분표시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부 주도로 3년에 걸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가 진행되어 월경용품과 여성 건강의 상관 관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정부의 환경보건 정책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도 월경이 여성재생산건강 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월경권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와 의제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생리용품 광고,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등 변화 도출

2017년 여성환경연대의 월경운동 이후 월경용품 시장이 변했다. 흰색, 깨끗함을 강조해왔던 생리대 광고에 핏빛이 등장하고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 불편함 등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대기업 위주인 생리대 시장에 안전성, 친환경성을 내세운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였으며 먼 생리대, 생리컵과 같은 대안 월경 용품 시장이 커졌다. 여성환경연대가 주축이 되어 만든 연대조직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월경교육과 모든 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급하는 보편지급 조례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제정되었으며 '월경용품 가격 안정화법' 발의 등 월경 빈곤과 공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조성되었다.

3. 플라스틱없다방, 미세플라스틱 이슈 제시한 face to fish 등 유쾌한 실천 주도

2010년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컵 사용이 만들어내는 플라스틱 쓰레기 증가와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 컵 쓰기 운동을 해왔다. 유명인들과 함께 하는 화보 제작, 카페에서 텀블러를 빌려주고 반납하게 하는 '움직이는 컵' 캠페인을 진행했고 '플라스틱없다방'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다회용 빨대 등 대안용품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프리카페 정보를 제공했다. 일회용컵 사용을 제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2020년 12년 만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부활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2015년에는 미세플라스틱 이슈에 주목하여 환경단체 최초로 국내에 씻어내는 화장품 속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캠페인 'face to fish'를 진행했다. 국내에 유통되는 9000여개 화장품을 모니터링했고 서명운동을 통해 화장품협회, 정부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그 결과 2017년 식약처의 화장품법 개정고시안이 마련되었으며 씻어내는 종류의 화장품과 치약 등 의약외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되었다.

4. 농부와 도시를 연결하는 텃밭운동- 마르쉐@ 시장을 통한 건강한 생태와 라이프스타일

여성환경연대는 아토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먹거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도시에서의 생태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을 모색하기 위한 슬로라이프 운동의 하나로 텃밭 운동을 시작했다. 학교, 지역에서 시작된 텃밭 운동은 점차 확대되어 문래동, 합정, 홍대 등 도심 한복판의 텃밭 조성으로 이어졌고 텃밭을 운영하면서 남아도는 생산물 처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시장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얼굴이

있는 농산물과 음식을 사고파는 장터, 그럼으로써 도시 농업을 응원하고 도시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을 확산하는 장터 마르쉐@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마르쉐@은 관행 농업을 하던 농부들이 토종 씨앗과 다품종 소량 생산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또한 마르쉐 참여를 통해 농부-요리사, 농부-주변 도시 소비자와의 연결 등 새로운 로컬 푸드 네트워크를 곳곳에 만들어냈다. 전국에 마르쉐@을 닮은 얼굴 있는 작은 장터들이 생겨난 것도 큰 변화다. 소비자들 역시 마르쉐@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넘어서 도시에서의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먹거리를 통한 농촌, 지역과 관계 맺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삶의 전환을 꿈꾸는 청년, 여성들이 마르쉐@가 제공하는 판을 통해 도시농부, 요리사, 수공예 예술가로 진로를 모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5. 제3세계 여성생산자를 지원하는 공정무역, 페어트레이드코리아

여성환경연대는 젠더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과 제3세계 여성의 빈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공정무역 여성 생산자들을 방문하고 한국 여성활동가들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 환경, 그리고 빈곤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정무역이라는 희망 비즈니스를 통해 아시아 곳곳에 있는 가난한 여성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만들고, 국내에도 윤리적인 소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 그:루를 인큐베이팅했다.

제3장 미래 비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임팩트 그라운드를 통해 3년간 지속적으로 후원을 받는다면, 어떤 요소를 해결하고 싶은가?

월경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다.

인구 절반이 생애주기 40년 이상 누구나 겪는 보편적 문제이고 젠더갈등, 생태환경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월경 테마를 믿음직하게 풀어나갈 플랫폼이 부재한 상태다.

모두를 위한 월경, 온오프 월경플랫폼 #월경119

언제 어디서나 바로 월경과 연결된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존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AI와 메타버스가 낫설지 않는 첨단 산업사회에 살고 있지만 월경에 대한 인식수준은 아직 원시적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이다.

준비 없이 초경을 시작하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월경 교육은 입시 교육 이상으로 중요한 생애주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와 돌봄, 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재한 상황이고, 오히려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어린시절부터 건강하지 못한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젠더감수성에 무심한 상태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이 된다. 우리사회의 첨예한 갈등인 젠더문제를 처음부터 건강하게 풀어가면서 '모두의 월경'과 긴밀하게 연결된 여성의 몸/맘/밥의 문제들을 생태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하고 사회적 변화를 만드는 유쾌한 공감의 장이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01. 시민 누구나, 초경부터 완경까지 월경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믿고 연결해서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오프 플랫폼을 구축한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월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확산, 말 못할 작은 고민까지 다정하게 돌보는 소통창구 역할, 다양한 월경용품 체험하고 선택하는 장)
02. 여성/생태/젠더갈등/기후위기대응은 개별적인 문제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모두의 월경/월경119'에서 유쾌한 공감의 장을 만든다.
(월경 빈곤 문제의 해결, 월경 안전성 확보, 지구도 건강한 월경 캠페인과 실천)
03. 건강한 몸/건강한 맘/건강한 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생활 속의 실천 제도 개선, 정책 도출, 생산자의 각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다.
(지구도 사람도 아프지 않게 건강한 몸과 맘과 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근본적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전국 확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금이 주로 사용될 분야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기술

여성환경연대는 성평등과 환경문제를 연결하는 대안생활운동, 환경건강운동과 여성환경활동가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해 왔고, 뚜렷하고 의미있는 시민실천과 정책변화를 만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해왔다.

특히 월경권 운동과 관련하여 2005년부터 마을, 생활협동조합, 학교 등에서 면생리대 워크숍과 월경교육을 시작하여 최근의 일회용 생리대 안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운동까지 15년에 걸쳐 모두를 위한 월경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15년간의 월경 운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온 여성환경연대의 인적 네트워크와 쌓여 있는 자원과 정보, 정부 기업들과 협업 경험을 통합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통합 플랫폼을 만든다. 이를 통해 여성환경연대가 추구해온 가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인식개선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실시간 요구를 바로바로 반영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전문인력 보강으로 영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연구 자료를 생산하고 확보하여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과가 더 많은 당사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한다.

그 결과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사회적 변화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1. 소셜임팩트 비전

월경은 단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갈등/기후위기/생태와 연결된 우리 모두의 문제다. 초경부터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시작!

- 초경부터 원시적이고 잘못된 교육의 개선과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
- 월경 빈곤, 월경 혐오 등 성.재생산권에 대한 인식전환과 제도변화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성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여성의 몸과 월경건강을 통합적으로 돌보고 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월경문제를 해결할 소통과 체험, 지식공유를 확산한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여성건강 돌봄솔루션을 개발한다

2. 주요 사업 아이디어

1) 소통과 운동의 확산을 위한 비대면 언택트 인프라 구축 어디서나, 누구나, 언제나 접속이 가능한 앱 <월경 119>

누구나 접속하여 언제든지 월경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연결과 확장이 가능한 공간

-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과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세대/성별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나누는 장 마련
- 교육자, 양육자를 위한 월경과 여성 건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과 배포

(1) 초경부터 완경까지 월경에 대한 정보 제공

- 초경 시기 돌봄과 교육, 생리통, 완경 시기 필요한 처방과 운동
- 공공월경대, 생리휴가, 생리공결제 등 관련 제도와 지원
- 월경하는 몸 긍정을 위한 교육 자료와 정보

(2) 동네 거점형 쌍방향 월경 문제 지원 플랫폼

- 월경빈곤, 싱글 파파 가정에서의 월경 등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한 지원 제공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과 지원이 가능한 개인, 단체 등 연계 서비스 지원

(3) 건강한 삶을 위한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초경부터 완경을 맞은 여성, 직장인 등 대상에 맞는 몸,맘, 돌봄 테라피 지원
- 월경문제에서 확장하여 거식증, 폭력, 우울증 등 여성의 몸과 마음에 대한 어려움 상담과 생태적인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식습관 형성 제안 등

2) 오프라인 체험+ 교육 스페이스 <모두의 월경, 월경119 센터>

- 다양한 월경용품 직접 체험 및 미래형 비대면 프로그램 생산을 위한 공간 구축
- 월경과 여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형성
- 청소년 직업체험공간인 키자니아를 모델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월경 관련 정보와 체험을 친근하게 제공

(1) 월경용품 체험장 운영

- 다양한 월경용품 전시와 사용 정보 제공 및 체험 가능한 공간 운영
- 모두를 위한 월경을 위한 성중립 화장실 운영
- 제로웨이스트 월경용품 직접 체험과 사용법 익히는 프로그램 운영

(2) 몸, 맘, 밥 통합 치유 공간

- 초경부터 완경을 맞은 여성, 직장인 등 대상 맞춤형 테라피 프로그램 진행
- 식생활 교육을 위한 친환경 로컬 푸드 판매장 및 카페테리아 운영

(3) 월경 교육 진행 및 활동가 양성

- 10대, 양육자, 교육자를 대상으로 하는 월경/여성 건강 교육 진행
- 여성 몸 긍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진행
- 우리동네 월경 교육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4)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한 담론 형성과 인식 제고를 통한 성평등 기여

- 여성의 몸에 대한 왜곡을 심화시키는 광고와 패션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사이즈 다양성과 있는 그대로의 몸 긍정이 기업이 책임과 윤리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 장애여성, 여성 이주 노동자, 콜센터나 이동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 진행
- 월경페스티벌, 세계 월경의 날 등을 통해 문화예술 작업자,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월경과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에 대한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활동

3) 연구인력 및 활동 역량 보강으로 월경-여성 건강 운동의 전문성 확보

전문 연구 인력 보강으로 영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연구조사자료를 생산하고 확보하여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더 많은 당사자들에게 인식되고, 그 결과 확실히 스케일 업된 사회적 변화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 여성의 몸, 월경, 돌봄 관련 연구자 채용 및 활동가 충원과 조직 확대
- 여성 건강에 대한 정책 연구 조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역량 향상
- 여성의 몸과 월경에 대한 연구조사, 이론작업, 번역 활동
- 에코페미니즘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개설
- 해외의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관련 분야에 프로젝트 성과를 알리고 지구적 차원에서의 활동으로 전개

4) 지속가능한 플랫폼 제작과 운영을 위한 홍보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월경과 여성건강 콘텐츠 공모사업 주최
- 월경 119, 월경교육센터 기록 및 아카이빙 작업
- 온 오프라인 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앱, E-book, 단행본, 웹툰 등으로 퍼블리싱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1. 월경과 여성 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
 - 월경119앱 다운로드 및 사용자 연간 100만명 /센터체험 인원 1일 100명
2. 생태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성들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확산
 -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그룹 100개 (월경통자조모임, 여성용품유투버, 월경컵

사용자 모임 등)

3.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강화 등 여성 건강 정책 개선
 - 환경부, 여가부,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협력해 생리대 보편 지급 확대
4. 배리어 프리 월경용품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
 - 여성의 몸공정과 월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제로 한 공연, 전시, 웹툰 등의 문화콘텐츠 공모 및 제작지원 / 100인의스폰서그룹구축(문화예술, 의학, 상담 등)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스케일업

월경과 여성건강을 중심으로 실행한 지원사업의 성공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여 돌봄 안전망 구축, 아시아 여성활동가 지원, 생분해 월경용품 개발 등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시장의 변화를 이끌며 임팩트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한다.

1. 월경119를 상호돌봄 사회안전망 서비스로 확장

1) 문제 의식

-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여성 우울증과 자살건수가 급증했다. 특히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은 다른 세대의 5배에 이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 전체 자살 건수는 감소했지만, 20대 여성의 자살률은 급증했다. 'N번방 사건'과 같은 사이버성폭력에 노출되고 데이트폭력과 교제살인으로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한다. 마네킹처럼 마르고 긴 몸만 찬양하는 사회에서 거식증과 '프로아나'로 10대 소녀들은 매일 토해내고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부정한다. '깎창 생리대'로 드러난 월경빈곤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여성의 몸에 대한 혐오와 여성의 하는 일에 대한 가치 편하를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40년간 하는 월경을 혐오하는 것,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것, 여성이 하는 돌봄을 공짜나 저임금노동으로 만드는 것이 서로 통한다.
- 젠더갈등이 심각한 사회에서 여성뿐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모두를 위한 몸과 마음을 서로 돌보고 응원하는 사회 연결망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어린시절부터 젠더갈등과 혐오의 출발점이 되는 ‘월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초경 교육에서 출발하는 소통과 공감의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2) 사업 아이디어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월경과 연결된 문제가 있을 때 쉽게 접속해서 의논할 수 있는 플랫폼인 ‘모두를 위한 월경/월경119’ 앱을 구축하고, 향후에는 당근마켓처럼 위치 기반으로 동네의 여성과 어린이를 서로 돌보는 사회안전망 APP으로 발전시킨다.
- 초경부터 환경까지 월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과 어린이가 건강한 몸(초경부터 환경까지 월경119), 맘(우울방지, 자살방지, 상담도우미), 밥(건강하고 다정하게 한끼 도우미)의 안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만들어 관련된 일을 진정성 있게 해온 개인과 단체를 서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 키워드: #NotAlone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3) 중장기적인 확장 아이디어: 4개 권역별 마더센터 건립

- 1인가구 청년, 어린 아이를 전담으로 돌보는 사람, 독거 어르신 등 돌보는 사람들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교류 공간을 서울 4개 권역별로 건립
- 동네텃밭, 공유부엌, 놀이방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운영되도록 함
- 돌봄 관련한 상담과 일자리 정보를 나누는 공유허브로서 기능하도록 함

2. 아시아 지역 여성-환경 단체와 협업과 활동가 연수

1) 문제 정의

- 네팔,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은 국가별 문화와 종교 특성으로 인해 월경에 대한 금기와 터부가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월경하는 여성을 거주지에서 동떨어진 움막에서 지내게 하고, 종교시설이나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차우파티’ 문화가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화는 월경하는 몸을 가진 여성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된다.
- 월경교육과 면생리대 지원사업에서 시작하여 여성의 몸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 여성-환경 단체들과 협업하여 여성 건강/월경 교육 사업 및 활동가 연수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필요하다.

2) 사업 아이디어

- 아시아 지역 공정무역 여성 생산자들과 함께 젠더와 월경 교육 진행
- 아시아 여성 환경단체 활동가 및 로컬 활동가가 참여하는 교류와 연수 프로그램 운영

3. 로컬-친환경 재료 사용한 생분해 월경용품 개발 및 일자리 창출

1) 문제의식

- 2017년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 이후 월경용품 시장에서 친환경이 키워드로 등장하여 수많은 유기농 생리대가 출시되었다. 하지만 이들 생리대는 가격이 개당 700-900원에 이를 만큼 고가이다. 건강에 좋은 생리대가 출시되지만 너무 비싸서 구매력이 있는 여성만 사용가능하고, 여성건강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져온다. 출시되는 생리대가 실제 친환경 재료를 전적으로 사용하여 생태계 영향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부족하다.

2) 사업 아이디어

-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서 로컬-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생분해 월경용품 개발/생산
- 월경용품,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과 친환경성에 대한 인증제 마련 및 운영
- 관련 여성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스케일 아웃

지원사업을 통해 얻은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센터 '월경 119'의 구축 노하우를 기반으로 지역 파트너 단체와 함께 자발적 소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상상력과 지역성이 풍부한 로컬 대안을 만든다.

1.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지역에서 월경과 여성건강 자조실천모임 인큐베이팅

1) 문제의식

- 오프라인 건강과 돌봄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동 가능한 근거리에서 대면 모임이 활발하게 운영되며, 건강뿐 아니라 삶의 여러 측면에서 지지와 돌봄을 불러일으킨다. 삶이 통합된 건강돌봄 프로그램은 파리시장인 안 이달고가 제안한 '15분 도시'처럼 중앙집중적이지 않고 필요한 거리에 가까이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서울에 과대밀집되어 있다.

2) 사업 아이디어

-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지방에 기반을 둔 월경과 여성건강 자조실천모임과 사회적 일자리 인큐베이팅

2.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그룹 발굴과 지원 프로그램 진행

1) 문제의식

- 전주, 상주, 제주에는 다양한 에코페미니스트 그룹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단체의 모양을 갖추기도 하고, 3~4명의 친구나 뜻맞는 개인이 모여 게릴라식 캠페인이나 프로젝트를 구성하기도 한다. 제주에서 오버투어리즘 반대나 기후위기 행진을 벌이고, 전주에서는 지구를 생각하는 1인 여성가구를 위한 독립생활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어떻게 개인의 삶과 지구공동체 기여를 조화롭게 만들 것인지 대안을 만들고 실험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중적인 정보와 자원으로 이들의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고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오히려 더 보수적인 농촌 분위기에 막혀 공동체로부터 고립되고 삶과 일의 전망을 만들기 어렵다.

2) 사업 아이디어

- 새로운 대안과 실험을 모색하는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그룹과 발굴 및 지원
-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과 지역, 동네와 개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개인 지원 프로젝트 개발

3. 우리동네 제로웨이스트 리빙랩 만들기

1) 문제의식

- 일회용 생리대뿐 아니라 우산, 구두, 자전거 등 수리하여 재생될 수 있는 많은 생활용품들이 폐기되어 지구생태계를 오염시킨다. 하지만 서울 중심지에 1-2곳 운영되는 자원순환센터는 실제 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활용되기는 어려움이 많다.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일상기술 터득과 공유 플랫폼이 동네마다 운영되어 일회용품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고 동네형 자원순환 경제 실험을 벌여 풀뿌리 순환경제를 구축한다

2) 사업 아이디어

- 고장나면 쉽게 버리게 되는 우산, 자전거, 가방 등 생활잡화 수리 기술, 되살림 기술을 동네 주민이 직접 훈련받고 자원활동으로 기여
- 여성 생활잡화 수리 기술자 양성과정 운영 및 동네형 제로웨이스트샵 병행
- 일회용 생리대 대신 다회용 면월경대 제작을 위한 여성노인 바느질 과정 개설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 동네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면월경대 워크샵, 되살림 교육 등 진행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 '모두를 위한 월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생산 및 플랫폼 개발
- 월경과 여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가상 공간 구축: 월경119
- 생태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성들의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제4장 세부 사업계획서 (2022년)

1. Scope and Approach 사업 범위와 접근 방식 제안하는 사업의 범위와 접근 방식을 설명해주세요.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위에 정의한 문제와 연결되는지 서술하세요.

문제 1.

시민 누구나, 초경부터 완경까지 월경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믿고 연결해서 의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온오프 플랫폼을 구축한다. (모두를 위한 새로운 월경교육 콘텐츠 개발과 확산, 말 못할 작은 고민까지 다정하게 돌보는 소통창구 역할, 다양한 월경용품을 체험하고 선택하는 장)

■핵심목표 1 : 전문가와 함께 단체 활동 컨설팅 및 브랜딩 작업 진행

■핵심목표 2 : 회원 확대를 위한 모금 전략 수립 및 모금 작업 진행

: 월경 및 여성건강, 대안생활 등 여성환경연대의 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 작업을 바탕으로 단체 영향력을 확대하고 MZ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지세력 형성을 위한 활동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 브랜딩 작업을 통해 새롭게 방향을 가다듬는다. 이 사업은 다음 핵심목표인 온오프 플랫폼 구축과 연계되어 시민,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단체의 이미지를 리뉴얼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여성환경연대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산해나가기 위한 회원 확대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지지 세력과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핵심목표 1 : 교육/체험 오프라인 공간(플레이스 달) 마련 및 운영

■핵심목표 2 : 플레이스 달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 월경을 중심으로 한 여성 건강, 에코라이프를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플레이스 달'을 마련하여 활동의 접점을 넓히고 확산을 위한 모델을 만든다. 또한 '플레이스 달' 홈페이지 개설로 월경교육 콘텐츠를 널리 확산하고 전국의 월경 교육 및 행사를 홍보하고

아카이빙한다. ‘플레이스 달’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누구나 접근가능한 월경 문제의 소통창구를 마련한다.

문제2.

여성/생태/젠더갈등/기후위기대응은 개별적인 문제 같지만 하나로 연결된 문제임을 인식하고 ‘플레이스 달’에서 유쾌한 공감의 장을 만든다. (월경 빈곤 문제의 해결, 월경 안전성 확보, 지구도 건강한 월경 캠페인과 실천)

■핵심목표 1 : 월경,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조사 활동 진행

■핵심목표 2 : 월경 캠페인 진행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핵심목표 3 : 월경/여성건강 시민 활동가(이웃집 B전문가)양성 과정 운영 및 네트워크 조직

: 월경 및 기후위기에 대한 연구 조사 활동으로 여성과 생태, 젠더 문제와 기후위기 대응의 연결고리를 보다 설득력있게 전달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이를 기반으로 월경 빈곤의 문제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월경 온라인 콘텐츠를 배포함으로 월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나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월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월경/여성건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민활동가 양성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온라인 뿐 아니라 학교,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직장, 복지센터 등 일상에서 월경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월경 교육 활동가 전국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문제3.

건강한 몸/건강한 맘/건강한 밥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교육과 생활 속 실천 제도 개선, 정책 도출, 생산자의 각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을 이끌어낸다. (지구도 사람도 아프지 않게 건강한 몸과 맘과 밥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환경연대의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근본적 라이프스타일 변화의 전국 확산)

■핵심목표 1 : 대중 컨퍼런스 진행을 통한 에코페미니스트 발굴 및 전국 확산

■핵심목표 2 : 전국의 에코페미니스트 그룹 지원, 전국 워크숍 진행

: 대중 컨퍼런스를 통해 가시화되지 않았던 에코페미니즘 이슈 및 인물을 발굴하고 소개함으로써 에코페미니즘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에코페미니즘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에코페미니스트 그룹을 지원하고 네트워킹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에코페미니즘 확산과 대중화에 기여한다.

2. 세부 사업계획서

1. 단체 브랜딩 이미지 구축(2022)

■ 목표

- 지속가능한 단체 운영을 위해 예비회원을 발굴하여 회원 규모를 확대
- 여성환경연대 비전에 동의하는 회원 및 서포터즈의 수를 늘려 운동의 성과를 확산시킴

(1) 브랜딩 작업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

- 여성 및 환경이슈에 관심있는 시민활동가 타겟 분석
- 브랜드 인지도 분석 및 포지셔닝 전략 분석
- 컬러 아이덴티티를 적극 활용한 통일된 디자인 이미지 킷 제작

(2) 기존 회원 분석 및 단체와의 결속력 강화

- 기존 회원의 가입 동기 및 후원 연한 분석
- 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 정도와 기대치 분석
- 후원 회원에서 참여회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2. <플레이스 달> 공간 디자인 및 운영(2022~)

■ 목표

- 다양한 월경용품을 직접 체험 및 미래형 비대면 프로그램 생산을 위한 공간 구축
- 월경과 여성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형성

(1) 플레이스달 공간 기획 및 디자인(2022)

- 카페, 상점과 같은 공간을 운영하는 여성주의 활동단체 자문
- <플레이스달> 관련 의견 수렴 워크숍 진행

(2) 월경과 여성건강 관련 전시/교육/체험 공간 운영 (2023~2024)

- 다양한 월경용품 전시와 사용 정보 제공
- 모두의 월경과 성인권 보장을 위한 성중립 화장실 운영
- 제로웨이스트 월경용품 및 생활용품 소개
- 플레이스달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3) 월경과 여성건강 교육 진행 및 시민활동가 양성 (2022~2024)

- 10대, 양육자, 교육자 등 대상자 맞춤형 여성건강 교육 진행
- 몸긍정을 위한 교육과 워크숍 진행
- 우리동네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에코페미니즘과 여성건강운동 확산 (2022~2024)

■ 목표

- 여성의 몸에 대한 건강한 담론 형성과 인식 제고를 통한 성평등 기여
- 전문 연구 인력 보강으로 영향력 있고 신뢰할 만한 연구조사자료를 생산, 확보

(1) 월경의 날(5.28) 행사 및 여성건강 컨퍼런스 진행 (2022)

- 문화예술 작업자, 관련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행사 진행
- 다양한 세대와 시선에서 여성건강 이슈를 발굴하고 의제화
- 월경을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자 몸의 주기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캠페인

(2) 전문연구인력 확보 (2022~2024)

- 여성의 몸, 월경, 돌봄 관련 연구자 채용 및 활동가 충원과 조직 확대
- 상근 연구자 채용 및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기반 마련 (2-3인)
- 에코페미니스트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지원 (매년 연구 공모사업 시행)

(3) 정책 연구 조사 및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역량 향상 (2022~2024)

- 월경용품 보편지급 시행,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 강화 등 여성 건강 정책 개선
- 환경과 여성건강에 대한 국내외 연구물에 대한 조사, 아카이빙
- 여성의 몸과 월경에 대한 연구조사, 이론작업, 번역 활동
- 에코페미니즘 기후변화 리더십과정 개설

(4)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그룹 발굴과 지원 프로그램 진행 (2022~2024)

- 새로운 대안과 실험을 모색하는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그룹과 발굴 및 지원
-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과 지역, 동네와 개인을 연결하는 프로젝트 진행
- 지역 에코페미니스트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개인 지원 프로젝트 개발

3. Risk Mitigation 리스크 방지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플레이스달〉 오프라인 공간 운영에 대한 노하우 부족

■ 위험요소

- 월경용품 판매점, 일부 제로웨이스트숍 등과의 차별화 어려움
- 오프라인 공간 실질 운영경험 부족

(1) 전시와 판매를 겸하는 기존 상점과의 차별성 확보

- 여성주의, 환경과 관련한 강좌 및 워크숍을 상시적으로 운영
- 다양한 소모임에게 공간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회성 방문보다 주기적인 방문이 가능하도록 유도
- 단순한 소비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고 접하는 공간으로 포지셔닝 필요

(2) 오프라인 공간 운영에 대한 노하우 수집

- 카페형태의 지역운동 거점공간을 운영해 본 노하우가 있는 지역위원들로부터 공간운영 자문

- 여우책방 등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결합한 여성주의 활동 공간 운영자로부터 자문
- 공간 운영의 대상 타겟 설정을 분명히 하되,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SNS 마케팅 실시

Brianimpact ImpactGround